

Unloved, Beloved

- 광수광 목사 / 2003. 5. 5 -

광수 생각이란 만화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낙타 새끼가 어미낙타에게 묻습니다.

“엄마, 엄마 우리 왜 이렇게 속눈썹이 길지요?”

“응, 그건 우리가 사막을 여행할 때 모래가 눈에 들어가지 말라고 긴 거란다.”

“엄마 우리 왜 다른 동물들처럼 발굽이 갈라져 있지 않고 통 굽이죠?”

“응, 그건 사막 위를 걸어갈 때 모래에 발이 빠지지 말라고 그런 거란다.”

“엄마 그럼 우리 왜 등에 혹을 달고 다니죠?”

“응, 그건 우리가 사막을 가로질러 먼 나라에 갈 때 며칠씩 먹지 않아도 쓰러지지 않도록 영양분을 저장해 두는 거란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엄마 우리 지금 사막에 있지 않고 왜 여기 있는 거죠?”

낙타 모녀의 뒤에는 모모 동물원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밑에 한 줄 글이 써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있어야 할 곳에 계십니까?

청년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있다면 그것은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나 스스로의 답을 찾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자아 정체성 또는 영어로 ‘Identity’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 Identity가 내 삶에 결정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긍정적 identity를 가지고 있으면 긍정적 삶을 살게 되고 부정적 identity를 가지고 있으면 부정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존귀한 identity를 가지고 있으면 존귀한 삶을 살게 되고 쓰레기 같은 identity를 가지고 있으면 쓰레기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아이덴티티는 어떻게 형성될까요?

에릭 에릭슨이라는 교육학자가 말했습니다.

Identity는 두 가지에 의해서 형성된다. 하나는 내가 나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이해하는 것은 내 기억 속에 축적된 나의 경험과 그 경험에 대한 나의 해석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나에게 대한 이해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말하는 것들을 통해서 인식되어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은 사랑받는 경험, 존귀하게 대우받는 경험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들을 들으면서 자라야 합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이 받아야 할 사랑을 받지 못하고 들어야 될 좋은 말들을 듣지 못하고 자라면서 그 안에

잘못된 자아상, 비뚤어진 자아상이 형성되고 그 잘못된 자아상은 그 인생에 수 많은 어려움을 가져다주는 것입니다.

저는 모든 여인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으며 왕자와 결혼했지만 결국은 비극적인 교통사고로 인생을 마감했던 다이애나 왕자 비의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질병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이다.

The worst disease in this world is unloved! Unloved!”

저는 그녀가 죽은 이후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던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애도의 물결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녀를 통해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사랑받지 못하는 삶의 아픔을 애도하는 것이었다고.

그렇습니다. 오늘날 저는 많은 젊은이들의 삶 가운데 만연하고 있는 사랑받지 못한 삶 증후군 ‘Unloved syndrome’을 봅니다.

그들이 어디서 그 병을 치유 받을 수 있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의 삶과 행동으로 그들에게 들려주고 경험시켜 줄때에만 가능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You are my beloved son!”

하나님 안에서 Beloved, 사랑받는 자의 신분을 회복할 때에만 Unloved, 사랑받지 못한 질병으로 인해 왜곡된 젊은이들의 자아상들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 건강한 크리스천 전문사역자들의 정직하고 명쾌한 삶의 지혜! - 「온누리칼럼」 제공